농촌진흥청 보도자료 광복 80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8. 13.(수)

농촌진흥청-제일사료㈜ 사료산업 발전 기술협력 강화

- 13일, 사료 연구·분석 및 신소재 개발 등 업무협약 체결
- 정밀 사료 설계, 사료 원료 산업화 등 축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은 8월 13일 대전 제일사료(주) 하림중앙연구소에서 제일사료㈜와 국내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료 원료 및 성분 분석, 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 개발 등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료 원료 및 신규 소재 개발 ▲사료 성분 분석 및 품질 평가 ▲국내 사료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교류 ▲연구 공개 토론회(포럼) 및 공동 연수(워크숍) 정례화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2,190만 톤) 대비 약 10% 증가한 2,408만 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료가 축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곡물 수입 의존도는 약 78%로 매우 높다. 국제 곡물가 변동과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사료비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일사료와의 협력을 통해 국산 사료 원료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사료 설계 정밀도를 향상하고, 원가 절감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실용 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일사료(주) 권천년 대표이사는 "사료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60~70%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한 사료 설계와 원료 개발은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기술의 산업화를 앞당기고 농가 확산에 속도를 붙이는 중요한 동력이다."라며,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축산원-제일사료(주) 업무협약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책임자	과 장	정현정 (063-238-7450)
		담당자	연구관	강환구 (063-238-7455)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붙임 **국립축산과학원-제일사료(주) 업무협약 체결 개요**

❑ 개요

❍ **(협 약 명)** 국내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 **(협약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제일사료(주)

❍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2년('25. 08. 13.~ '27. 08. 13.)

❑ 협약식 계획

❍ **(일시/장소)** 2025.08.13.(수). 10:30~13:30 / 하림중앙연구소

* 주요일정 : 협약식, 하림중앙연구소 견학 및 간담회

❍ **(협약대표)** (우리측) 국립축산과학원장, (상대측) 제일사료(주) 대표

❍ **(참석인원)** 10명(축산원 5, 제일사료(주) 5)

❑ 주요 협약내용

❍ 사료 관련 **최신 연구 및 분석 등 정보 교류, 협업 및 상호 지원**

❍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포럼 및 워크숍 등 정례화 추진**

❖ **산업현장, 분석 및 국내·외 최신 연구 정보 등 교류·확대**

* (제일사료) 사료시설, 산업 현황 및 이슈 등 현장 중심의 실무 정보 지원

* (축산원) 연구 시설, 사료 소재 개발 등 연구 정보 공유 및 지원

❍ 가축 **사료 소재 개발 및 산업적 이용 방안 협업·확대**

❑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축산원 연구직 연구·분석 능력 향상, 산업적 이해 증진

❍ **(사회·경제적 측면)** 사료 소재 등 산업 필요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